

# 광주 에어가전 '공기산업' 고용창출·수출증가 성과

### 2025년까지 융복합단지 조성...지원·연구기관, 기업 입주 지난해 448억 투자협약...신제품 신남방국가 수출 가시화

광주시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에어가전을 중심으로 한 '공기 산업'이 고용창출과 수출액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단지 조성, 투자 기업 유치,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지역 기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는 2025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평등 3차 산업단지내 13만2000㎡ 규모로 조성되며, 관련 전문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앵커기업 등을 유치해 공기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대창 등 공기산업 관련 9개 기업

과 448억원 규모의 1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융복합단지 내에 공장이 실제로 착공 되는 등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산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형 국비 발굴 사업인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장'의 마중물로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개선을 위한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국비 20억을 확보해 올해부터 인증 실증 장비 구축과 지역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센터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간다.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는 실내 공기정화 성능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험 시설과 인공지능 연계 가상환경을 구축해 중소기업

업 신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인증에 대한 애로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 에어가전 기업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출 2000억원, 수출 330만달러, 고용창출 120명 등의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함께 2018년부터 신남방 국가(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등)로의 공동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차 지원의 성과로 2019년 디케이 등 9개사 10개 제품이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해 현지 가전 유통회사인 AOM사, dna사와 2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이끌어냈다.

2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에어가전 제품 시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대영전자 등 13개사 25개 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태국에 공동전시관을 설치하고, 현지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와 태국 흡소핑 진출을 위한 영상제작을 완료했다.

이달 중 현지 흡소핑 등을 통해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해 에어가전제품이 신남방국가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 운영으로 지역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지원과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기업들의 집적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광주가 공기산업 메카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입힌다

### 실·국, 사업소별 정책 발굴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에 나선 광주시가 행정에 인공지능 접목을 시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본청 실·국, 사업소 등은 각각 AI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은 시장 전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민원인에게 부서 위치, 회의·행사 정보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조직도'를 만든다. 일자리경제실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산업국은 연말까지 자치구 보건소와 빛고를 건강타운에 AI 의료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안전실은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와 재난재해 예측·대응 시스템, 복지건강국은 AI·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국은 오는 7월 AI 기반 미혼 남녀 인연 맺기 플랫폼을 개편하고 가임기 여성,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AI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폭염, 미세먼지 분석(환경생태국), 스마트 교차로 조성(교통건설국), 비대면 청사 안내 시스템(자치행정국), 햇빛으로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군 공방 이전추진본부), AI·콘텐츠 융합 창작 플랫폼 구축(문화관광체육실) 등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과거 산업사회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AI 정책 발굴은 중요하다"며 "각각의 정책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수정·보완해 시민 생활 편의와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천일염 산업 기반구축 지원 강화

### 100억 투입 소금산업진흥센터 신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산업에 대한 기반구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원' (총사업비 100억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소금에 특성화된 연구센터는 R&D, 품질검사 등 분산된 국가 사무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도에 유치될 경우 생산자 편의 제공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일염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신안군에 건립중이다.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구축되면 국제식품규격(CODEX) 등 해외 수

요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천일염 수출시장 개척 및 소비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여름철 대량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영광과 신안에 천일염 임시저장고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곧 산지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생산자의 수급 조절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전남도에서 생산된 고품질 천일염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원 및 유통센터를 통해 산업의 체계화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26만2000t으로 이중 전남산이 93%인 24만4000t을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진실 알린 정형달 신부 장례미사 19일 오전 광주시 서구 영주동성당에서 고(故) 정형달 바오로 신부에 대한 장례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제공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정병문 원장 임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업무로 맡고 있는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6대 원장으로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정병문씨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임 원장 사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장 모집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 2명을 추천했으며, 이사회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원장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1순위로 추천된 정병문씨를 임명했다.

박남언 이사장은 "정병문 원장은 임용에 따른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감수성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여 원장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에 출범한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용차량 116대와 전용택시 97대를 운행하며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연간 50만 건 이상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350억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전남도는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차단 및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로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산단과 폐기물처리장, 생활권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도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지난해 사업비 150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했으며, 이는 올해 전국예산 1471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사업은 도내 12개소 37ha 규모로 추진되며, 시·군별로 ▲목포 옥암수변지역(2ha) ▲여수 옛전라선 폐철도 등(7ha) ▲순천 울촌산단 등(7ha) ▲광양 폐철도 등(7ha) ▲곡성 결면 농공단지(3ha) ▲보성

폐곡도(2ha) 등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화순 화순천(1ha) ▲강진 쓰레기매립장(1ha) ▲영암 대불산단(1ha) ▲무안 남악신도시(2ha) ▲함평 축산농공단지(1ha) ▲신안 자은 쓰레기소각장(3ha) 등에서도 사업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수종선정과 식재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상지들의 사전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후박, 아왜나무, 홍가시 등 상록활엽수와 함께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이 설계에 반영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숲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